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15차시, 체계학,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 5 가지 증거와 다른 본문, 예배, Extra Calvini sticum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체계학,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 5가지 증거와 다른 본문, 예배, Extra Calvinisticum 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신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5가지 역사적 증거 중 5번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신성한 칭호를, 그에게 신성한 속성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는 일을 돌립니다.

다섯 가지 증거 중 다섯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맥락은 선한 사람들이 경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사, 첫 번째 선교 여행, 실례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라에서 사도행전 14:8에서 그것을 봅니다. 리스트라에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고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가 건강해질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로 똑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리코니아 어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통된 또는 코이네 그리스어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자신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란 의 경우 , 그것은 리코니아어 였고 ,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언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 기적에 놀라서 리코니아어로 ,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가 멋지고 크고 남자다운 수염을 기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폴 헤르메스, 다른 판테온의 헤르메스나 머큐리는 메신저 신이다. 폴은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가 주요 연설자였기 때문이다.

루크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 입구에 있는 제우스의 사제는 황소와 화환을 문으로 가져와 군중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리코니아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된 여사제에게서 바디 랭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타르수스 신학교에 가서 선교 과정을 수강했을 때, 그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예배에 초대를 받고 당신이 신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은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글썄요 ,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에서 벗어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세대에 그는 모든 민족이 제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는 자신을 증거 없이 두지 않으셨으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선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의 막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제가 끌어낸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섭리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비와 풍성한 작물과 채소와 과일을 주어 저녁 식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요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점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죠. 계시록에서 두 번이나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환상에 압도당합니다. 정말 강렬하죠.

정말 장대한 의미가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19:10에서, 이 가운데서 천사가 나에게 말했어요. 19:9, 이렇게 쓰세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종이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선한 사람들은 경배하기를 거부한다.

선한 인간들. 선한 천사들도 마찬가지다.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요한이 다시 등장한다.

보라,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께서서 2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복된 후에 바로인지는 모르겠지만 , 사실입니다.

나 요한은 이런 일들을 듣고 본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보고 나서, 나는 그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들, 선지자들과 함께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 종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것은 계시록 22:8과 9 이어야 한다.

성경적 신앙의 이 맥락에서 선한 인간들은 예배를 거부하는데, 이는 리스트라의 바울과 바나바에서 예시된 바와 같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예배를 거부하는데, 이는 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래,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대한 다섯 가지 역사적 증거를 한 장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6, 그리고 다시, 그가 만아들을 세상에 데려올 때, 그는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할지어다. 나는 전에 그것이 만아들을 세상에 데려올 때, 하나님이 만아들을 세상에 데려올 때, 나는 그것이 인간의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평화, 사람들에게 선의, 등등.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말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의 세상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을 때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늘의 세상이다.

하늘의 세상은 하늘로 올라가고 높은 위엄의 오른편에 앉습니다. 3절. 예수께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9:38,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곤경에 처한 자녀나 같은 처지에 있는 하인을 사랑하며, 절박하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발, 그녀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면, 내 딸을 도와주세요, 내 하인을 도와주세요. 이걸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기독교 예배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오, 세상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침내 그에게 싫증이 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요한복음 9:34, 마지막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답을 좋아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퍼티입니다. 제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선생님. 제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 남자에게는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를 보았다. 꽤 좋은 말이군요. 너는 그를 보았다.

눈먼 사람이 보고,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저는 이것을 예배의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이 눈멀게 하려고요. 이것은 그의 불투명한 영적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의 빛, 그들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 속에서 자신의 영적 실명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그는 영적 시력을 주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예수의 빛,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을 거부하면서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는 그들을 눈멀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 의해 확인됩니다. 그의 가까이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 몇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눈먼 건가요? 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열등한 건가요? 예수께서는 눈먼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당신의 빛, 당신의 계시에서 우리의 영적 눈멀음, 가난, 필요의 깊이를 보는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눈멀었다면, 그의 의미에서, 당신의 영적 눈멀음을 보았다면, 당신은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합니다, 우리가 봅니다, 당신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한다면,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 계시한 것과는 반대로, 당신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남습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나는 빨리 말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의 방식입니다.

막소사. 2장 끝. 요한은 예수가 사람에 대해 말할 사람이 필요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3장. 이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표본입니다. 그는 표본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축제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술은 지금 그가 유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3. 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몫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는 그들에게 헌신함으로써 보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요한 복음에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부족한 믿음을 말하는 여섯 가지 경우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역할이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증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믿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는데, 그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입니다.

그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일원입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일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바치며 사람들의 눈에 존경받는 유대인 평신도 집단의 일원입니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교사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3 장은 그가 모든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 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맞죠? 아니요, 그것은 그가 영적 유치원에 있고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를 제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7장에서, 제 생각에는, 끝 부분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변호합니다. 19장에서 주목할 만한데, 저는 그것을 그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에게 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위해.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는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여자 ,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장부에 모든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여성에 관해서도, 그녀는 그다지 좋은 도덕적 모범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섯 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남자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오, 세상에. 하지만 신의 섭리로 그녀는 결국 여자 전도사가 되어 남자에게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해 준 남자를 만나러 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에서 뛰쳐나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그들은 그에게 잠시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한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은 그녀를 사용하여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위해 우리 자신에게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 자신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한은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언어로 보여주며,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그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여기 생각의 위협으로 돌아가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전직 시각 장애인, 헬렌 켈러도 없고, 점자도 없고, 안내견도 없지만, 그는 예수께서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예수 자신을 가리키시어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못된 경배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우리가 20장에서 이전에 말했듯이 동료 유대인을 마주보며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그는 도마가 의심하다가 보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유대인 동료를 숭배하는 듯합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신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빌립보서 2:10과 11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굴욕의 상태에 이어서 승영의 상태에 대한 유명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는 중요한 그리스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내세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형체 대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과정의 마지막에 두 가지 상태에 대해 논의할 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사야 45장이 배경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무릎과 모든 혀가 있지만, 그들이 모두 경배하러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이들이 와서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을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빌립보서 2: 10과 11에 따르면, 종말에 절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제약이며, 그가 모든 사람에게서 받을 만한 복종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리라, 야훼는 이사야 45 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의와 힘이 있습니다.

그에게 와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신약적 관점에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사람들과 컬트 신도들이 무릎을 꿇고 지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 그들은 예수가 주님이며 그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신뢰한다는 원시적인 기독교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추가 칼빈주의 이고 다른 하나는 케노시즘 입니다 .

교육학적 이유로 그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교육학적 이유로 extra calvinisticum 은 라틴어로 extra 또는 without calvinistic 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 Calvinisticum 은 라틴어로, 라틴어 형용사 calvinistic 입니다 .

따라서 extra calvinisticum 은 칼빈주의 extra, 칼빈주의 outside of 또는 outside입니다. 기본적으로 루터교의 저주 단어, 개혁파에 대한 루터교의 중상모략 또는 비방이었습니다. 사실, 케노시스 교리와 extra calvinisticum은 모두 루터교 개혁 논쟁에서 생겨났습니다.

둘 다 개혁주의 기독교인입니다. 둘 다 복음을 알고 사랑했습니다. 칼빈은 루터에게 엄청난 빛을 쬐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건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칭찬합니다. 그는 다른 초기 교부들의 해석에 있어서 칭찬합니다.

특히 존 크리소스톰 은 루터에게 약간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루터가 칼빈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가 받을 만한 만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속자들은 루터 칼빈의 신학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추가 칼빈주의 는 개혁 이후 칼빈주의 정통주의에 대한 루터교의 비판입니다. 예수가 개혁된 사람들에게 완전히 성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시기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미 교부들, 예를 들어 아타나시우스가 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E. David Willis,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친 로마 가톨릭 학자. 모르겠어. 꽤 오래 전 이야기.

그가 살아 있는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E. David Willis. *Extra Calvinisticum*. 칼빈의 천주교 신학.

제목은 그런 식이었다. 윌리스는 실제로 *extra calvinisticum* 이 초기 교회의 일부 사람들의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타나시우스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쳤다.

patristicum, *patristic outside or without* 또는 *extra catholicum*, *Catholic extra or without*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이 그리스도론은 확실히 절대적으로 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빛,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아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육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삼위일체가 이원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신격의 한 인격이 더 이상 신격 안에 있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성경적 정당성을 제시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저 설명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extra catholicum*, *extra patristicum*, *extra calvinisticum*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격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육신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완전히 육신 밖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육신 없이 머물렀습니다. 완전히 육신을 입고, 완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삼위일체를 폭발시키거나, 성육신한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케노시스 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성육신하고, 완전히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글썄요, 말씀이나 가르침은 성경에 있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이 모두

성육신한 아들이 섭리의 일을 했다고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영원한 아들이 섭리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아들이 섭리의 일을 그만두었는가?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 신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그가 섭리의 일을 계속했다면, 그는 육신으로 섭리의 일을 했는가? 확실히, 육신 이전의 아들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그는 어디에나 존재하거나 편재했다.

그는 그것을 포기했나요? 그는 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그것을 유지했다면, 그는 분명히 그것을 몸에 유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몸은 국소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나 유대에서 한 번에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콜로새서 1장,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17절. 그는 영원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아들에 대한 진술이든 성육신한 아들에 대한 진술이든, 그것은 그가 섭리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섭리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므로 삼위일체는 섭리의 일을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파생 중 하나는 삼위일체의 행위가 세 인격 모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 체계적인 신학적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격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인격 간의 구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동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나 성령을 십자가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들만이 죽었던 십자가조차도 삼위일체의 일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아버지 는 .

그리고 히브리서, 내가 종종 놓치는 구절인데, 히브리서는 계시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지만 히브리서는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브리서 9:14.

내 팔에 문신을 해야겠다. 영원한 영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는가? 구약의 제사가 정화를 제공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속죄를 연결하는 유일한 장소로 자격이 있다. 영원한 영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으셨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

고린도후서 5:19. 저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영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 14.

요점은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행위는 공유된다.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 다른 구성원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없다. 그것은 사실이며,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인격을 혼동하지 않고 구별한다.

그래서 아들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셨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격의 세 인격 모두 구약에서 섭리의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성육신하신 아들이 섭리의 일을 하는 것을 멈췄는가입니다. 만약 그가 멈췄다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입니까?

글쎄요, 정경 신학자들 중 일부는, 글쎄요, 그는 33년 동안 섭리의 일을 멈췄다가 부활과 승천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신은 신성한 기능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1:17, 모든 것이 함께 붙들려 있다고 말하거나, 히브리서 1:3에서, 그는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고 말할 때, 둘 다 성육신한 아들에게 섭리의 역사를 돌립니다. 이제, 성육신한 아들은 그의 몸에서 섭리의 역사를 하지 않았고, 그는 그의 몸 안에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2차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과 신학적 원리에 근거한 추론입니다.

삼위일체가 타당한가요? 물론입니다. 삼위일체의 사역이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이라는 사실인가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전히 육신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케노시스가 아닙니다. 나사렛, 케노시스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행동하고, 그 사람은 신인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때 그는 신인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확실히 성경의 모든 구절로 그것을 모두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네스토리우스파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결코 분리된 인간성이 없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아니지만, 지금은 땅에 있는 태양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으로 남았고 성육신 밖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신비하지 않나요? 오, 신비롭죠. 사실, 추가 Calvinisticum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거대한 역사적 신비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삼위일체는, 진정한 성육신에서 3분의 1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인격, 즉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이 이 교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루터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 개혁파와 달리, 그들은 그 반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신비를 사랑했고, 그는 신비를 사랑했습니다. 신비가 많을수록 좋았고, 그래서 그의 신학은 온갖 신비와 역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큰 존경심을 가지고 루터를 종교 개혁의 사도라고 불렀지만, 분명히 다른 어조가 있었습니다.

absconditus 와 Deus revelatus , 즉 숨겨진 신과 드러난 신을 구별했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설명했듯이, 칼빈은 완벽하게 동의할 것이지만, 그는 두 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는 정말로 그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두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하나님은 법령의 하나님이고, 그의 영광의 하나님이고, 예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며 우리를 만나는 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칼빈은 루터의 가르침을 많이 재현했지만, 그런 종류의 용어 중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은 루터와 동의하여 신자들은 동시에 simul justus et peccator ,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 없었다. 루터는 역설을 즐기는 듯했다. 내 종교개혁 교수는 "여기 다이어그램이 있다. 루터의 신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Simul justus et peccator* , 동시에 정의롭고, 동시에 죄인, 그렇게. 혹은 숨겨진 신, 드러난 신, 숨겨진 신.

그리고 여기 칼빈의 신학이 있습니다. 칼빈은 르네상스 인본주의자이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기 그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닭인 돌입니다. 오, 그는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역설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 개혁의 사도를 전적으로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이며, 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적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측정할 수조차 없어. 둘 다 천재였어. 오, 세상에.

하지만 그들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중세 수도사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칼빈은 르네상스 인본주의자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칼빈의 유혹은 연구였다. 그는 제네바와 그 못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루터란은 설교자였다.

칼빈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악마를 믿었지만, 칼빈은 악마에게 잉크병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칼빈은 어떤 종류의 정신적 문제, 루터가 평생 겪었던 어떤 종류의 대우울증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가 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더욱 주목할 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추론입니다. 두 번째 인격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성육신이 되고, 완전한 성육신이 되고, 신성한 아들은 완전히 밖에 남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을 완전히 이해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두 신비에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나는 온전한 완전한 구형 삼위일체론과 두 가지 자연 교리를 가진 강력한 일인칭을 동시에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노시스주의 , 케노시스, 그리스도론 .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할 때, 그리스어 단어 케노(keno)를 사용하는데, 자신을 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명사는 케노시스(kenosis)로,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교 하고 자세한 역사 입니다 . 저는 여러분에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로 깊이 파고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데이비드 웰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케노시스주의 . 케노시스주의 의 역사적 기원은 주로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와 칼빈주의에서 발생한 논쟁에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30년 전쟁 이후,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가 수만 명을 서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루터교와 개혁교 목사와 학자들은 정교한 시스템을 생각하고 개발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루터교는 말씀의 육신 그리스도론 안에서 움직였지만, 개혁파는 말씀의 인간적 접근 방식을 훨씬 더 옹호했습니다. 말씀의 육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은 인간의 몸을 취했고, 이단적 형태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없었습니다 . 폴리나리우스 주의 . 정통적인 형태에서,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듯이, 그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 영혼으로 거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풀리나리우스 , 로고스는 영혼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리스 심리학은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주도적인 원리이며, 인간 전체를 위한 지침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풀리나리우스 에서 , 말씀, 로고스가 그 인간 영혼을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성이 아니며, 아풀리나리우스주의는 451년 칼케돈에서 정당하게 비난받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완전한 인간성을 취하셨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신학은 여전히 말씀 인간보다는 말씀 육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인간 영혼으로 얼마나 행동하셨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는 위대한 아타나시우스는 정통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단어 인간 그리스도론은 영원한 단어가 자신에게 진정한 인간성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과 영혼이며, 때때로 그는 그의 인간 영혼에서 행동했습니다. 루터교는 육체 스키마라는 단어를 선호했습니다. 칼빈주의, 개혁 신학, 인간 스키마라는 단어.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의 편재성이나 편재성에 대한 관심은 성례적 맥락에 국한된 듯합니다. 그는 케노시스 교리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 그렇죠? 루터의 관심사는 무엇이였을까요?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 교리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오, 그는 그 단어를 유지했고, 그래서 루터가 주님의 만찬을 지칭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도이체 메세, 즉 독일 미사였지만,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 매우 달랐습니다.

루터는 주의 만찬이 희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회가 나중에 말했듯이 찬양의 희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아닙니다. 오, 세상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성체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기적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은 루터에게 성만찬에 현존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모든 로마 가톨릭 신학자에게도 현존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사용한 그의 작업은 루터와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려졌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수도사이자 신학자, 사제이자 신학자였으며, 외적으로는 요소가 물리적 요소, 즉 빵과 포도주로 남아 있었지만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외적인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내적인 본질 또는 실체는 바뀌었고, 따라서 실체의 전환, 실체 변화, 실체 변화였습니다.

외적인 초자연적 기적으로, 외적으로는 요소들이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지만 내적으로는, 아니, 루터는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가 테이블에 글을 쓸 때, 테이블에 글을 쓸 때, 테이블을 훼손할 때, 그는 츠빙글리를 만났고, 그들은 합의했습니다.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14점 중 13점, 그런 식으로요. 그는 hoc est 라고 썼습니다. 나움 corpum,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몸 안에 있었지만 이것이 그의 물리적 몸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츠빙글리에게 동료의 오른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웬스에서 심문관이 말했습니다. 마틴 수도사, 당신 혼자만 옳고, 모든 교부들과 잘못된 학자들은 다 옳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신이여,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도서관에서 얀 후스와 존 후스가 매우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후스도 로마에 의해 화형당했습니다. 로마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고, 안전한 통행권을 주었지만, 그를 죽이고 산 채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고객이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매우 긴 수명을 살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제임스 키틀슨 교수가 쓴 마틴 루터 개혁가를 추천합니다. 여러 면에서 정말 좋습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이지 않으면서도 학문적이고, 평범한 말로 쓰여 있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루터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반유대주의에 가담했던 까칠한 노인, 심술궂은 노인이었을 때를 포함하여, 그는 강점과 약점이 모두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그는 동료 개혁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당시 그를 둘러싼 젊은이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신앙의 아버지로 올바르게 여겼던 사람들은 울었지만, 마르부르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부르크 담화는 츠빙글리와 함께 열렸고, 츠빙글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루터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만찬에 임재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지 마세요. 기적이예요. 그는 요소 안에,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루터는 이 케노시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가 그것을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속성의 소통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교부 조사에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아래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지만, 개혁파와 루터교는 이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루터 자신은 부활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 그의 신성한 속성을 그의 인간 본성과 공유하여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편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만찬에 임재하실 수 있었고, 요소 안에서,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옛날의 불과 빛 이미지나 뭐 그런 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불이 빛과 함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그게 뭘 설명할까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일종의 기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희생도 없고, 사제 제물도 없고, 성체 변화도 없습니다. 루터교 형제 자매들이 성체 변화 이야기를 하는 게 놀랍습니다. 루터가 그 단어를 용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신비에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 중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웰스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쨌든 배경 설명은 이만.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편재성이나 편재성에 관심을 가진 것은 성례적 맥락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

루터는 공존설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 용어 자체는 항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칼빈이나 츠빙글리가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문자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는 편재성이 그리스도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케노시스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의 루터교도들, 그의 후손들은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였으며, 신앙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인간이 신성의 특성을 갖게 된 본성의 소통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인류와의 연속성을 끊었다고 데이비드 웰스는 편향된 개혁 신학자로 적었습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루터교도들에게,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로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존 브렌츠를 따랐고, 다른 일부는 마틴 켐니츠를 따랐습니다. 브렌츠파와 켐니츠파 .

브렌츠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단순히 공통된 인격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인격으로 단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므로 나중에 상대적 속성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의 인간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렌츠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의 편재성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자기 비움과 승영을 구별할 만한 것이 거의, 아니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처음부터, 성육신부터 그에게서 일치했다. 마틴 케미츠의 작업은 훨씬 더 온건하고 신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영구적이며 항상 지역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움직임입니다. Communico 케미츠에 따르면, 속성의 전이 는 신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속성이 영구히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신이 인간적인 것을 일반적인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성 교환은 케미츠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브렌츠에서는 지속적이고 성육신의 개인적 결합의 필연적 결과였다. 매우 중요한 상징이자 교리 적 상징인 조화의 공식은 루터교 신학자, 신학자들이 교리적 동반자를 갈라놓은 이 문제와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한 사상 학파를 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타협의 문서였으며, 둘 다 포용하려고 했다.

저는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겠지만, 정경 개요는 19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번성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부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경론자들은 신성한 로고스가 우리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지상의 조건과 제한에 복종하기 위해 적어도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고스는 자신을 인간적 차원으로 축소하고, 화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 본성에 적응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벗겨내는 과정이 상대적 속성인 전지전능, 전능함, 편재성을 상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성이 상대적인 속성을 영구히 박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라고 말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토마시우스를 언급해야겠습니다 . 영국에서 찰스 고어는 HR 매킨토시, AM 페어번, PT 포사이스 등과 함께 중요한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에서 영원한 신적 말씀의 속성은 실제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인 상태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성 의 완전한 잠재력으로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이해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간과 신성은 한 사람 안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용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구원의 행동으로 만났습니다 . 케노시스 이론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신성한 선제적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정경 이론은 역사적 예수에게 완전한 현실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케노닉 이론은 신성한 사랑에 상당한 도덕적 내용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그리스도론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체계학,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 5가지 증거와 다른 본문, 예배, Extra Calvinisticum 입니다.